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4, 891 - 909

대학생의 음주억제와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 유 미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 지 선
건국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음주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음주억제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232명(남자 104명, 여자 128명)을 대상으로 유혹 및 억제척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 문제음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음주량, 음주빈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종속변인인 음주량과 음주빈도에서 성차가 발견되어 남녀의 자료를 나누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억제와 음주량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남자의 경우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고, 여자의 경우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억제와 음주문제와의 관계에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음주량, 음주빈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음주억제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음주문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음주억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학생,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음주행동

[†] 이 논문은 제2저자의 지도하에 작성된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많은 대학생이 술을 마시며 그로 인한 여러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학생의 음주율과 음주관련 문제의 발생비율은 일반인에서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vans & Dunn, 1995). 국내에서도 대학생의 89.4%가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고, 14~15%가 알코올 의존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종순, 2000).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 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윤택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개인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물질남용 문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폭음(binge drinking)이다(Syre, Martino-McAllister, & Vanada, 1997).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1%가 지난 2주일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폭음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Johnston, O'Malley, & Bachman, 2003). 박종순(2000)도 35.1%의 대학생이 1주일에 1일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6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폭음 행동은 부상, 계획하지 않은 성행위,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 음주운전, 폭력 사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학업 문제 등(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폭음으로 대표되는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학 내 음주문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학생의 폭음과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대학생이 보이는 폭음 행동형태는 한 번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마시게 되는 통제력 상실 음주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와 음주관련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음주통제와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통제와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배우자의 통제 압력, 충동성,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 능력,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 술을 적게 마시라는 배우자의 압력이 강할수록 음주수준은 낮아지며(Raitasalo, & Holmila, 2005), 충동적일수록(Poulos, Le, & Parker, 1995; Simons, Gaher, Oliver, Bush, & Palmer, 2005), 신기성 추구(novelty-seeking) 성향이 높을수록(Galen, Hendersen, & Whitman, 1997), 부모가 허용적일수록(Patock-Peckham, Cheong, Balhorn, & Nagoshi, 2001),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을수록(Brown, 1998) 음주수준은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통제와 관련된 변인 중 인지요인인 음주억제(drinking restraint)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drinking refusal self-efficacy)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주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음주와 관련된 인지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지요인이 음주행동의 시작과 유지, 재발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며 성격이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비교적 변화시키기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Wilson, 1987). 음주억제는 음주를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적 집착이며(Ruderman & McKirman, 1984),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음주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이다(Oei, Fergusson, & Lee, 1998). 따라서 두 변인은 모두 자신의 음주행동을 통제

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주억제는 섭식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의도적 음주통제와 폭음을 반복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Bensley, 1991). 이렇게 음주통제와 폭음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하는 음주 유형은 음주 충동과 그 충동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특정 상황에서의 음주 행동은 이 갈등의 접근(음주) 또는 회피(비음주) 부분 중 어느 쪽이 순간적으로 더 강함가에 달려있다.

음주억제는 알코올 남용의 위험 요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억제라는 형태의 통제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음주억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통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정한 음주행동을 하게 되는 역설적 결과에 부딪힌다(Collins, 1993). Curry, Southwick과 Steel(1987)은 음주억제가 과음, 술에 취하는 경험, 알코올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음주억제가 강할수록 음주 관련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연구에서도 음주억제는 음주량, 음주관련 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Collins & Lapp, 1992; Connor, Young, Williams, & Ricciardelli, 2000), 대학생의 폭음을 예측하였다(Collins, Koutsky, Morsheimer, & MacLean, 2001).

음주동기, 음주억제, 음주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음주억제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적/정서적 집착 요인은 음주 수준, 음주 문제, 알코올 의존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은 음주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yvers, Hasking, Hani, Rhodes, & Trew, 2010).

알코올 음료에 대한 맛 평정 과제(taste-rating task)를 실시한 연구에서 음주억제는 과제 수행 시간 동안의 음주량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Collins, Gollnisch, & Izzo, 1996). 위험음주자를 알코올 음료의 시각과 후각 단서에 노출시키고 음주 충동을 통제하도록 요구한 다음 맛 평정 과제를 실시한 연구에서 음주억제자는 음주 충동이 더 강하고 충동 통제가 어려우며 음주량이 더 많았다(Palfai, 2001).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억제는 의존의 심각도, 음주량, 음주 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Connor, Gudgeon, Young, & Saunders, 2004; Connors, Collins, Dermen, & Koutsky, 1998). 이상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음주억제자의 통제하고자 하는 지나친 노력은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조절실패와 불안정한 음주행동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음주억제가 자기 통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음주억제자는 전반적 자기 통제가 낮았다(Southwick & Steele, 1987; Williams & Ricciardelli, 2000). 자기 통제는 장기적 목적과 충돌하는 충동, 욕구, 정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하며, 성공적인 음주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Hodgson, 198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억제는 문제음주와 전반적 자기 통제력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 Ricciardelli, 1999).

자기 통제 강도 모델(self-control strength model)에 따르면 통제력은 한정된 인지 자원이기 때문에 충동이나 정서, 사고, 행동을 억제하고 나면 감소하게 된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지적 피로 혹은 과부하 상태를 야기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Muraven, Tice, & Baumeister, 1998). 따라서 음주억제자가 보이는 음주행동 억제에 대한 인지적 집착은 자기 통제에 필요한 인지 자원을 소모시켜 자기 통제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억제는 자기 통제력을 감소시켜 음주행동에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기 통제력은 모든 상황에 일반적인 전반적 자기 통제력을 말하는 것이다. 술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는 신념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인데, 이것과 음주억제간의 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음주억제자의 인지기제 중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술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자기효능감의 개념(Bandura, 1986)을 음주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음주에 취약한 상황에서 음주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Oei et al., 1998). 일반인과 임상집단 대상 연구에서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일반인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i, Hasking, & Phillips, 2007). 백인과 아시아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 수준과 부적 상관성이 있었다(Oei & Jardim, 2006). Hasking과 Oei(2002)의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일반인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음주기대나 대처자원보다 잘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or et al., 2000). Oei와 Burrow(2000)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음주행동에만 특정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알아본 결과 음주량과 특정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카페인이나 니코틴 섭취량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을 사용한 연구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사회음주자와 문제음주자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Oei et al., 1998; Lee, Oei, & Greeley, 1999).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치료 예후와 재발도 예측한다. 치료 이후 재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았다(Burling, Reilly, Moltzen, & Ziff, 1989). 알코올 의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kutle(1999)은 음주로부터 심리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았으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의존의 심각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Connor 등(2000)은 알코올 효과기대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함께 음주기대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음주기대와 음주억제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설명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음주억제와 음주기대는 모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예측하였으며, 음주억제는 음주문제를 예측하고 음주기대는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ciardelli, Connor, Williams 및 Young(2001)은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사회음주자와 문제음주자를 구분해주는지를 알아보

있는데 남녀 모두 문제음주자가 음주억제가 높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이 두 연구에서는 음주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음주억제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음주억제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살펴보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억제자는 음주 유혹을 크게 보고하고 전반적 자기통제력이 낮음으로 인해 음주 통제 시도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 통제 실패 경험을 한 음주억제자는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자기비난적 귀인은 음주 통제에 대한 효능감을 감소시키고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Collins & Lapp, 1991). 그러므로 음주억제가 높을수록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낮아질 것이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억제와 음주행동 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음주문제는 조현섭(2003)이 개발한 문제음주 선별검사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알코올로 인하여 신체나 심리, 사회, 학업, 직업, 법, 경제, 영적기능, 가족 및 대인관계 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미한 음주행동에서부터 알코올 남용이나 해로운 사용의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C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7명이었다. 이 중 전혀 술을 마시지 않

는다고 응답한 8명과 결측치를 포함한 7명을 제외한 23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04명(44.8%)이고 여자가 128명(55.2%)이었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32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0.68세(SD=2.25)였다.

본조사에 앞서 유혹 및 억제 척도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타당화를 위해 서울 C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21명에게 두 질문지를 먼저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료는 두 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71명(58.7%), 여자 50명(41.3%)이었고,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27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0.73세(SD = 2.29)였다.

측정도구

유혹 및 억제 척도 (Temptation Restraint Inventory). 음주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Collins와 Lapp(1992)이 개발한 유혹 및 억제 척도(TR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TRI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문항의 인지적/정서적 집착(Cognitive and Emotional Preoccupation) 요인과 6문항의 인지적/행동적 통제(Cognitive and Behavioral Control) 요인으로 나뉜다. 인지적/정서적 집착 요인은 음주에 대한 유혹을 반영하며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은 음주를 제한하려는 생각과 노력을 반영한다.

번안한 질문지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크리 도표를 기준으로 요인 수를 2개로 정했고 요인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promax 방식으로 사교 회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에만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고 있었다. 1번부터 14번까지의 문항은 원본 질문지와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으나 15번 문항 "음주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는 원본 질문지와 달리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에 묶여서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총 14문항으로서 8문항의 인지적/정서적 집착 요인과 6문항의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인지적/정서적 집착 요인이 $\alpha = .85$,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이 $\alpha = .82$ 로 나타났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Oei, Hasking 및 Young(2005)이 개발한 개정판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DRSEQ-R)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DRSEQ-R은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압력 상황, 일상적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지이다.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 요인분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를 기준으로 요인 수를 3개로 정하였으며 요인간 상관을 고려하여 promax 방식으로 사교회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각각 하나의 요인 내에서만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부터 19번까지의 문항은 원본 질문지와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그러나 1번 문항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사회적 압력 상황 요인에 속한 문항이었으나 본

표 1. 유혹 및 억제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3. 음주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745	
5.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음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522	
8. 술과 관련된 TV광고, 잡지 광고, 또는 주류판매점 간판을 보면 자신의 음주에 제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까?	.566	
10. 과음에 대한 죄책감이 술 마시는 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583	
12. 술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자신의 음주에 제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까?	.688	
14.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시도로서 술을 줄여본 적이 있습니까?	.795	
15. 음주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632	
1. 불안할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781
2. 외로울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774
4. 가끔씩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542
6. 꼭 술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562
7.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552
9.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까?		.550
11. 술에 대한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622
13. 음주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529

요인 1: 인지적/행동적 통제, 요인 2: 인지적/정서적 집착

연구에서는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아서 제거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총 18문항으로 사회적 압력 상황 요인 4문항, 일상적 상황 요인 7문항, 정서적 상황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α)는 사회적 상황 요인이 .85, 일상적 상황 요인이 .87, 정서적 상황 요인이 .93이었다.

음주량과 음주빈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시는 술의 평균 잔수(표준잔)와 1주일 동안의 평균 음주 횟수를 자기 보고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문제음주 선별검사.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조현섭(2003)이 개발한 문제음주 선별검사를 사용

하였다. 문제음주 선별검사는 문제음주자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한다. 문제음주 선별검사는 ‘문제성’, ‘의존성’, ‘음주욕구’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alpha = .79$ 였다.

분석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변인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음주와 음주관련변인에 성차가 있다는 연구(Nolen-Hoeksema, 2004)가 있어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음주억제와 음주행동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표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질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322	.251	.253
3. 화가 날 때	.838		
6. 좌절감을 느낄 때	.944		
7. 걱정될 때	.924		
8. 속상할 때	.931		
9. 의기소침할 때	.805		
10. 안절부절 못할 때	.631		
12. 슬플 때	.857		
2. TV를 볼 때		.613	
5. 점심 식사를 할 때		.600	
11.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405	
14.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795	
16. 혼자 있을 때		.599	
17. 운동을 마친 다음		.536	
19. 막 집에 돌아왔을 때		.780	
4. 다른 사람이 술을 권유할 때			.867
13. 배우자나 애인이 술을 마실 때			.925
15. 친구들이 술을 마실 때			.894
18.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809

요인 1: 정서적 상황, 요인 2: 일상적 상황, 요인 3: 사회적 상황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Kenny, Kashy 및 Bolger(1998)가 재정의한 4단계 접근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3.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와 성차

모든 변인의 남녀별 기술통계치와 성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량이 많으며, $t(230) = 5.95, p < .001$, 음주빈도가 높았다, $t(230) = 2.99, p < .01$. 남자는 여자보다 음주욕구가 높고, $t(230) = 3.17, p < .01$, 인지적/정서적 집착이 높았으나, $t(230) = 3.14, p < .01$, 일상 상황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t(230) = -4.71, p < .001$.

표 3. 각 변인의 남녀별 평균, 표준편차 및 남녀간 차이

	남자 (n = 104)		여자 (n = 128)		t (df = 23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량	8.21	6.17	4.53	2.99	5.95***
음주빈도	1.06	.95	.75	.58	2.99**
음주문제	3.04	3.14	2.55	2.85	1.23
문제성	2.39	2.36	2.16	2.45	.75
의존성	.10	.38	.17	.44	-1.39
음주욕구	.55	.97	.23	.55	3.17**
음주억제	29.68	10.72	27.45	9.22	1.70
인지적/정서적 집착	16.04	6.88	13.54	5.26	3.14**
인지적/행동적 통제	13.64	5.86	13.91	5.81	-.35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78.50	13.61	82.70	11.40	-2.56*
사회적 압력 상황	10.38	4.09	11.34	3.87	-1.83
일상적 상황	37.08	5.16	39.63	3.00	-4.71***
정서적 상황	31.04	7.80	31.72	7.33	-.68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변인간의 상관

	음주억제	자기효능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억제				
자기효능감	-.51**			
음주량	.43**	-.45**		
음주빈도	.42**	-.42**	.51**	
음주문제	.65**	-.37**	.54**	.52**

** $p < .01$

상관분석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음주억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r = -.51, p < .01$, 음주량, $r = .43, p < .01$, 음주빈도, $r = .42, p < .01$, 음주문제, $r = .65, p < .01$,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량, $r = -.45, p < .01$, 음주빈도, $r = -.42, p < .01$, 음주문제, $r =$

$-.37, p < .01$, 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음주량은 음주빈도, $r = .51, p < .01$, 음주문제, $r = .54, p < .01$,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음주빈도는 음주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52,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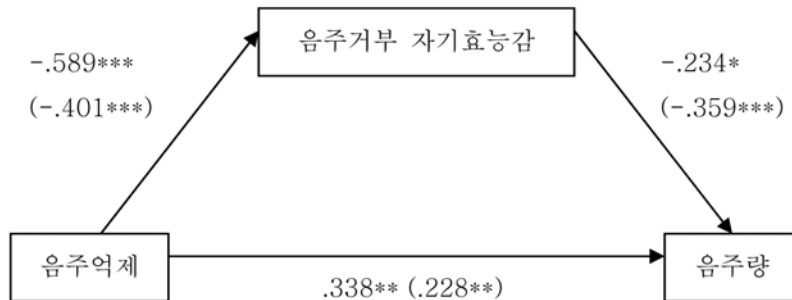
매개효과 검증

성차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자료를 구분하여 음주억제와 음주행동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종속변

표 5. 음주량에 대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t	R ²	β
남자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음주억제 → 음주량	5.465***	.226	.476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7.360***	.347	-.589
	3, 4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음주억제 → 음주량	3.199**	.262	.338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량	-2.209*		-.234
	1단계 음주억제 → 음주량	4.504***	.139	.372
	2단계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4.918***	.154	-.401
여자	1) 음주억제 → 음주량	2.695**	.247	.228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량	-4.232***		-.359

* $p < .05$, ** $p < .01$, *** $p < .001$



남자(여자)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음주억제와 음주량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인 음주행동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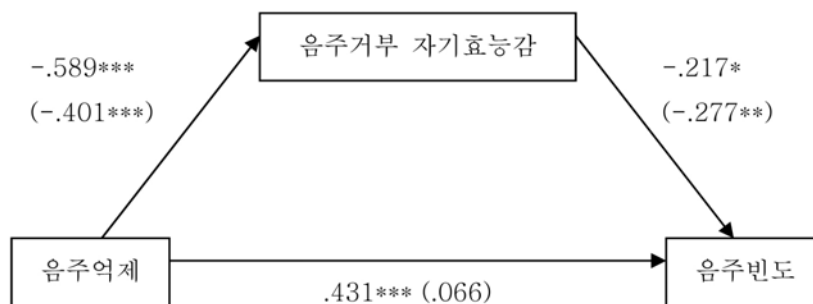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Kenny 등(1998)이 재정의한 4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단순회귀방정식,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측하는 단순회귀방정식,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중다회귀방정식의 세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네 단계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첫째, 첫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표 6. 음주빈도에 대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t	R ²	β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음주억제 → 음주빈도	6.815***	.313	.559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7.360***	.347	-.589
3, 4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음주억제 → 음주빈도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빈도	4.326*** -2.176*	.344	.431 -.217
1단계	음주억제 → 음주빈도	2.018*	.031	.177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4.918***	.154	-.401
	1) 음주억제 → 음주빈도	.707	.096	.066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빈도	-2.987**		-.277

* p < .05, ** p < .01, *** p < .001



남자(여자)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먼저 음주억제와 음주량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녀 모두 음주억제가 음주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남: $\beta = .476, p < .001$, 여: $\beta = .372, p < .001$, 음주억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남: $\beta = -.589, p < .001$, 여: $\beta = -.401, p < .001$. 음주억제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남: $\beta = -.234, p < .05$, 여: $\beta = -.359, p < .001$, 따라서 음주억제와 음주량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검증되었다. 세 번째 회귀식에서 음주억제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었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남녀 모두 음주억제가 음주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남: $\beta = .559, p < .001$, 여: $\beta = .177, p < .05$, 음주억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남: $\beta = -.589, p < .001$, 여: $\beta = -.401, p < .001$. 음주억제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빈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남: $\beta = -.217, p < .05$, 여: $\beta = -.277, p < .01$, 따라서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남자의 경우 세 번째 회귀식에서 음주억제의 회귀계수는 여전히 유의한 수준이어서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고, 여자의 경우 세 번째 회귀식에서 음주억제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억제와 음주문제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남녀 모두 음주억제가 음주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남: $\beta = .620, p < .001$, 여: β

표 7.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계	변인	t	R ²	β
남자	1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음주억제 → 음주문제	8.419***	.410	.640
	2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7.360***	.347	-.589
	3, 4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음주억제 → 음주문제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문제	6.641*** -.223	.410	.628 -.021
여자	1단계 음주억제 → 음주문제	9.850***	.435	.660
	2단계 음주억제 →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4.918***	.154	-.401
	3, 4단계 1) 음주억제 → 음주문제 2)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 음주문제	8.556*** -1.199	.441	.624 -.087

* $p < .05$, ** $p < .01$, *** $p < .001$

= .660, $p < .001$, 음주억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남: $\beta = -.589$, $p < .001$, 여: $\beta = -.401$, $p < .001$. 그러나 음주억제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남녀 모두에게서 음주문제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 $\beta = -.021$, $p > .05$, 여: $\beta = -.087$, $p > .05$,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음주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음주억제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와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인 중 음주량과 음주빈도에서 성차가 나타나 남녀의 자료를 나누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음주억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저하를 예측하였다. 음주억제자는 음주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강한 인지적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인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로 인해 음주 단서와 유혹을 무시하는 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Baumeister & Heatherton, 1996). 즉 음주억제자는 술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 확인되었다. 이는 또한 음주억제자의 통제 실패에 대한 자기비난적 귀인이 음주 통제에 대한 효능감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Collins와 Lapp(1991)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음주억제와 음주량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입증되었다. 이것은 음주억제가 음주량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를 통해 음주량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에서도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남녀 모두에게서 입증되었다. 남자의 경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음주억제가 음주빈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음주억제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부적 관계를 통해 음주빈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자의 경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음주빈도가 음주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음주억제로 인해 낮아지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성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음주억제와 음주 빈도를 완전매개하고, 남성의 경우 부분매개한다는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Dijkstra, Sweeney 및 Gebhardt(2001)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 다음으로 예측력이 컸으며, 남성의 경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 아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Ricciardelli 등(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음주자의 경우 음주수준에 따라 사회상황, 정서상황, 그리고 일상적 상황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간에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성음주자의 경우에는 사회상황에서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에 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음주행동에 대

한 예측력이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Oei와 Baldwin(1994)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2단계 모델(two-process model)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음주행동의 습득 단계에서는 도구적 학습을 통해 음주기대가 형성되고 음주기대에 기초해 술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통제된 과정(controlled process)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행동과 단서가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면 술을 마실 것인가를 결정할 때 더 이상 의식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게 되고 자동적 과정(automatic process)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음주 행동의 유지 단계에서는 음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음주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일반인 집단에서는 음주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임상 집단에서는 음주행동과 관계가 없었다는 Hasking과 Oei(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모델을 성차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음주 수준이 높으므로(Nolen-Hoeksema, 2004) 남성은 2단계 모델의 유지 단계에 들어선 비율이 여성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음주행동과 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자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성은 여성보다 음주 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가한 남성은 2단계 모델에서 말한 음주행동의 유지단계에 여성보다 더 가까워져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억제와 음주빈도간의 관계에서 음주거부 자

기효능감의 영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 경험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는데, 추후에는 남녀간의 음주력의 차이와 음주행동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남녀 모두에게서 음주억제와 음주문제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억제는 음주문제를 단독적으로 잘 예측하지만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음주문제를 예측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 음주억제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므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빈도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술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음주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음주량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음주억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고 이로 인해 음주량이 많고 음주빈도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문제에 있어서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고 음주억제만이 단독적으로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는 과음이나 잦은 음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술로 인해 경험하는 대인관계나 직업상의 문제, 인지적·신체적 문제, 부정

적 정서 경험, 음주충동 통제 실패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문제는 특정상황에서 술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보다 술을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강한 음주충동을 더불어 느끼는 음주억제자의 특성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억제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가장 큰 차이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특정 상황에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낮다는 의미이므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술을 자주 마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문제는 음주빈도나 음주량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Kahler, Epstein, & McCrady, 1995). 음주거부 자기효능감도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관련된 측정치이지만 음주억제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음주를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기적인 자신감을 측정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음주문제를 예측함에 있어서 음주억제보다 그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Connor, Williams와 Ricciardelli(1999)의 연구에서도 음주억제는 남자에게서는 음주문제 변량의 48%를, 여자에게서는 음주문제 변량의 45%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Conno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음주억제가 알코올 효과 기대 및 음주거부 자기효능감보다 음주문제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음주억제와 음주,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음주간의 단편적 관계를 검토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음주억제와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음주억제와 음주량, 음주빈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음주억제와 음주문제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생의 음주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음주억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음주문제를 보이는 대학생의 음주를 억제하고자 하는 집착을 줄여주고, 음주유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음주에 취약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기 통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음주문제를 줄이는 데에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음주억제자의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인지치료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를 통제하고자 하는 집착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음주에 대한 인지적 집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음주억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술을 쉽게 마시게 되는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적 대처 기법을 연습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 대처기술 훈련을 통해 구체적 음주 상황을 가정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생각해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량과 음주빈도가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증진 훈련을 통해 이후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해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인이나 임상집단에 일반화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인 집단이나 임상 집단에게서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 음주행동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 집단의 경우 재발을 예측하는 데에 음주억제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가능하다.

둘째,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문제를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자신의 1주일간의 평균 음주량 및 음주빈도를 적도록 하였기 때문에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반응하였거나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에는 달력 형태의 모니터링 차트를 사용해 한 달 동안 매일의 음주 행태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음주량과 음주빈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음주 선별검사 외에도 다른 음주문제 측정도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음주문제의 정도를 교차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자료만을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알코올 의존자와 일반인간에 음주기대,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같은 음주 관련 인지변인의 음주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Hasking & Oei, 2002)도 있으므로, 추후에는 음주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음주억제, 음주거부 자기효능감과 음주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박종순 (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섭 (2003). 문제음주 선별검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eister, R. F., & Heatherton, T. F. (1996). Self-regulation failure: An overview. *Psychological Inquiry, 7*, 1-15.
- Bensley, L. S. (1991).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interpretation of drinking restraint as a response conflict. *Addictive Behaviors, 16*, 139-150.
- Brown, J. M. (1998). Self-regulation and the addictive behaviors. In W. R. Miller & N. Heather (Eds.), *Treating Addictive Behaviors* (pp. 61-73). NY: Plenum Press.
- Burling, T. A., Reilly, P. M., Moltzen, J. O., & Ziff, D. C. (1989). Self-efficacy and relapse among impatient drug and alcohol abusers: A predictor of outcom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354-360.
- Collins, R. L. (1993). Drinking restraint and risk for alcohol abuse.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1*, 44-54.
- Collins, R. L., & Lapp, W. M. (1991). Restraint and attributions: Evidence of the abstinence violation effect in alcohol consumption.

-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5, 69-84.
- Collins, R. L., & Lapp, W. M. (1992). The Temptation and Restraint Inventory for measuring drinking restraint.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625-633.
- Collins, R. L., Gollnisch, G., & Izzo, C. V. (1996). Drinking restraint and alcohol-related outcomes: Exploring the contributions of beverage instructions, beverage content and self-monitor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 563-571.
- Collins, R. L., Koutsky, J. R., Morsheimer, E. T., & MacLean, M. G. (2001). Binge drinking amo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A test of a restraint based conceptualization of risk for alcohol ab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 333-340.
- Connor, J. P., Gudgeon, E. T., Young, R. McD., & Saunders, J. B. (2004). The role of drinking restraint in alcohol dependent validation of the Temptation and Restraint Inventory in an alcohol dependent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 250-254.
- Connor, J. P.,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1999).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restrain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643-646.
- Connor, J. P., Young, R. McD.,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2000). Drinking restraint versus alcohol expectancies: Which is the better indicator of alcohol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352-359.
- Connors, G. J., Collins, R. L., Dermen, K. H., & Koutsky, J. R. (1998). Substance use restraint: An extension of the construct to a clinical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75-87.
- Curry, S., Southwick, L., & Steele, C. (1987). Restrained drinking: Risk factor for problems with alcohol? *Addictive Behaviors*, 12, 73-77.
- Dijkstra, A., Sweeney, L., & Gebhardt, W. (2001). Social cognitive determinants of drinking in young adults: Beyond the alcohol expectancies paradigm. *Addictive Behaviors*, 26, 689-706.
-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e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pper et al.'s 1988 study in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186-193.
- Galen, L. W., Hendersen, M. J., & Whitman, R. D. (1997). The utility of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and expectancy in the prediction of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22, 93-106.
- Hasking, P. A., & Oei, T. P. S. (2002).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coping resources in predicting alcohol consumption in community and clinical sampl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0, 465-494.
- Hodgson, R. J. (1989). Resisting temptation: A psychologic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4, 251-257.
- Johnst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2003).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975-2002. Vol. II: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ages 19-40 (NIH Publication No. 03-5376)*.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f Drug Abuse.
- Kahler, C. W., Epstein, E. E., & McCrady, B. S. (1995). Loss of control and inability to abstain: The measurement 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nstructs in male alcoholics. *Addiction*, 90, 1025-1036.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1)*, pp. 233-265. New York: McGraw-Hill.
- Lee, N. K., Oei, T. P. S., & Greeley, J. D. (1999). The interaction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high and low risk drinkers. *Addiction Research*, 7, 91-102.
- Lyvers, M., Hasking, P., Hani, R., Rhodes, M., & Trew, E. (2010). Drinking motives,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ur among young adults. *Addictive Behaviours*, 35, 116-122.
- Muraven, M., Tice, D. M., & Baumeister, R. F. (1998). Self-control as limited resource: Regulatory depletion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74-789.
- Nolen-Hoeksema, S. (2004).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for alcohol use and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81-1010.
- Oei, T. P. S., & Baldwin, A. R. (1994). Expectancy theory: A two-process model of alcohol use and ab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525-534.
- Oei, T. P. S., & Burrow, T. (2000). Alcohol expectancy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 test of specificity theory. *Addictive Behaviours*, 25, 499-507.
- Oei, T. P. S., Fergusson, S., & Lee, N. K. (1998). The differential role of alcohol expectancie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problem and nonproblem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704-711.
- Oei, T. P. S., Hasking, P. A., & Phillips, B. A. (2007). A comparison of general self-efficacy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in predicting drinking behavior.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3, 833-841.
- Oei, T. P. S., Hasking, P. A., & Young, R. McD. (2005).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DRSEQ-R): A new factor structure wit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78, 297-307.
- Oei, T. P. S., & Jardim, C. L. (2006). Alcohol expectanci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ur in Asian and Australian student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7, 281-287.
- Palfai, T. P.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tation and responses to alcohol cu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2, 657-666.
- Patock-Peckham, J. A., Cheong, J., Balhorn, M. E., & Nagoshi, C. T. (2001).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A model of parenting styles, self-regulation, perceived drinking control,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5, 1284-1292.
- Poulos, C. X., Le, A. D., & Paker, J. L. (1995). Impulsivity predicts individual susceptibility to high levels of alcohol self-administration. *Behavioural Pharmacology*, 6, 810-814.
- Raitasalo, K., & Holmila, M. (2004). The role of the spouse in regulating one's drinking.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3, 137-144.
- Ricciardelli, L. A., Connor, J. P., Williams, R. J., & Young, R. McD. (2001). Gender stereotypes and drinking cognitions as indicators of moderate and high risk drinking among young women and men.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1, 129-136.
- Ruderman, A. J., & McKimman, D. J. (1984). The

- development of a Restrained Drinking Scale: A test of the abstinence violation effect among alcohol users. *Addictive Behaviors*, *9*, 365-371.
- Psychology, *55*, 325-331.
-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9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12월 8일
게재결정일: 2009년 12월 10일
- Simons, J. S., Gaher, R. M., Oliver, M. N. I., Bush, J. A., & Palmer, M. A. (2005).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affect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6*, 459-469.
- Skutle, A. (1999).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expectancies, severity of alcohol abus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drinking. *Addictive Behaviors*, *24*, 87-98.
- Southwick, L., & Steele, C. (1987). Restrained drinking: Personality correlates of a control style. *Journal of Drug Issues*, *17*, 349-358.
- Syre, T. R., Martino-McAllister, J. M., & Vanada, L. M. (1997). Alcohol and other drug use at a university in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Survey findings and implications. *College Student Journal*, *31*, 373-381.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B.,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A national survey of students at 140 campus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1999). Restrained drinking and cognitive control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4*, 557-564.
- Williams, R. J., & Ricciardelli, L. A. (2000). Relationship between restrained eating and drinking, sex-role stereotypes, and self-control.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 259-268.
- Wilson, G. T. (1987). Cognitive studies in alcohol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 Vol. 14, No. 4, 891 - 909

The mediating effect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Yumi Kho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Jisun Park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drinking restrai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Specifically, the mediating effects of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quantity,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problem were hypothesized. 232 students (male 104, female 128) completed the Temptation and Restraint Inventory, the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Questionnaire-Revised, and the Problem Drinking Screening Test, as well as frequency and quantity measure of self-reported drinking. Since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wo dependent variables, drinking quantity and drinking frequency, data of males and females were analyzed separately. The results showed tha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quantity. In the relation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frequency,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was a partial mediator in males and a full mediator in females.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probl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restraint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alcohol consumption, and that a therapeutic approach to drinking restraint is needed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inking problem.

Keywords: drinking restraint,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nd drinking behaviors